

광주시정 속도를 높여라

지하철 2호선 등 주요 현안 중단·재검토 ... 시급한 사업 타이밍 놓치면 국비확보 차질

시장, 과감한 결단 내려줘야

광주시의 미래를 책임질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민선 6기 들어 더디게 진행되면서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소 느리더라도 시민의 의견을 묻고 각종 위험요소를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사업도 있지만, 국가 예산확보나 타지역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은 서두르지 않을 경우 지체 타이밍을 놓쳐 사업취소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민선 6기 들어 정부의 사업 승인까지 완료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립을 재검토하고 있다. 건립계획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건설방식을 찾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민선 4기 때 지상고가 방식으로 결정했다가 민선 5기 때 저상도 방식으로 바꾼 데 이어 민선 6기 들어 또다시 건설방식을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3면> 가뜰이나 호남지역에 압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 정부는 광주시의 재검토를 트집잡아 이미 편성한 국비 52억원마저 지급을 늦추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 확보도 불투명하다. 광주시가 도시철도 재검토를 위해 구성된 TF팀 위원 대다수는 이 같은 이유 등으로 2호선 건립 결정에 좀 더 속도를 내야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재건축 방식으로 추진되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건립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으로 꼽힌다. 광주U대회 선수촌 사례를 보면 선수촌 입지확보 등 기본 방침 결정부터 완공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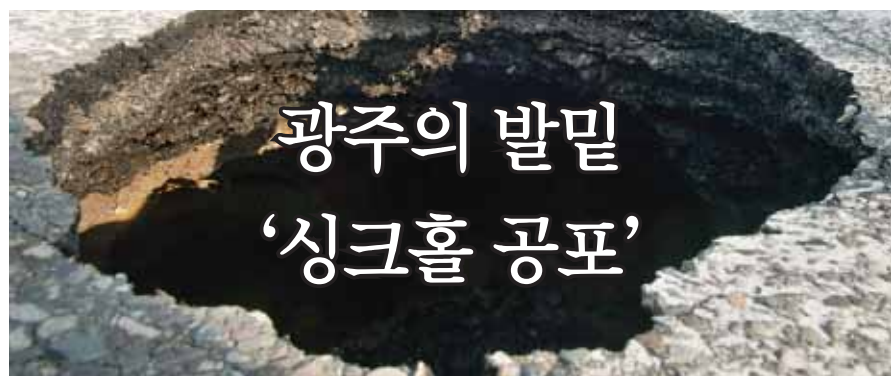
5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2019년 7월에 열린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서둘러도 선수촌 건립 일정이 빠듯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민선 6기 인수위 시절부터 논란이 된 KTX 광주역 진입 여부도 민선 6기 출범 두 달이 다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다. 특히 내년 3월 KTX호남선이 개통될 예정인 가운데 아직까지 정차역 문제조차 결정하지 못하면서 KTX호남선 개통에 따른 대책 마련에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된 전일빌딩 리모델링 계획도 전면 중단된 상태다. 내년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중요 외곽시설인 전일빌딩의 리모델링도 완성해야 하지만, 공사기간이 최소 1년 6개월이 걸린다는 점에서 동시 개관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광주문화재단과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비엔날레재단 등 '문화도시 광주'를 이끄는 3대 수장의 공백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일부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장의 '자리 버티기'가 이어지면서 시 행정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특성상 (윤장현)시장의 입(지시)만 보고 있는데, 명확한 지시나 지침을 내려주지 않고 있다. 민선 6기 들어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다'는 푸념이 나오는 이유"라면서 "시민의견 반영도 좋지만, 시일이 촉박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과감한 결단을 내려줘야만 150만 인구의 광주시정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집중호우...하천에 휩쓸린 경남 창원 시내버스



집중호우가 내린 25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지산고 인근 하천변을 운행하던 시내버스가 범람한 하천 물에 휩쓸려 다리에 걸려 있다. 출동한 119 구조대가 버스 안 수색을 위해 투입되고 있다. >관련기사 7면 /연합뉴스



20년 이상 노후 상하수도관 3000km...곳곳이 '지뢰밭'

광주에서 20년 이상 된 노후 상하수도관이 3000km를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도심 곳곳이 싱크홀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이른바 '지뢰밭'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원주 새누리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말 기준, 광주 하수관 총 연장 3917km 중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해 내구연한이 초과된 하수관은 총 1660km로 전체의 4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33.9%(4만1820km)보다 8.5%포인트가 높은 수치다. 상수도 총 연장 3733km 중 20년 이상된 노후 상수도는 1160km로 전체의 31.1%에 달했다. 전국 평균은 26.63%다. 반면 전남은 노후 하수관과 상수관이 각각 541km(13.5%)·3447km(3.5%)로 전국 평

군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가 전남보다 싱크홀의 위험도가 훨씬 높은 이유는 일찌감치 도심이 형성되면서 관로가 설치된데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노후 관로를 제때 교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원주 의원은 "상하수도관 누수로 인한 싱크홀이 최근 몇 년간 급증하고 있는 것은 1990년대 이전에 설치된 도관들의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시기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광주시 서구 품앗동 롯데마트 인근 도로에 지름 50cm·깊이 1.5m의 구덩이가 발견됐다(사진). 광주시 서구는 "도로 밑을 지나는 오수관 내부 이음매가 파손되고 장시간 오수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면서 주변 토사 등이 접해돼 생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野 "장외투쟁 불사" 與 "3자 협의체 안 돼" 세월호 정국 파국으로 가나

세월호범 정국이 여야간 극한 대결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제안을 새누리당이 사실상 거부하자 강력한 대외 투쟁을 선언, 교착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에 따라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8월 임시국회의 공전은 물론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까지 파행이 이어질 공산이 커보인다. 26일부터 실시기로 합의했던 국정감사 분리실시도 사실상 무산됐으며 이달 말에 예정되었던 2013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도 9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의총에서는)3자 협의체는 유가족의 동의와 사회적 공감을 얻는 방식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3자 협의체 제안이 거절될 경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대외 강경투쟁을 예고한 만큼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전면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의 극약처방까지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박영선 원내대변인은 의총 모두 발언에서

3자 협의체와 관련, "오늘까지가 시한"이라면서 "새누리당이 거절하면 강도높은 대외투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사실상 합의를 포기한 새정치연합이 협상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한다며 반박에 나섰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인 유보에 대해 야당이 사과해야 우리한테 논의구도를 바꾸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의 대표가 합의한 것은 국민의 합의고 이는 지켜져야 한다"면서 "야당은 작년 내내 대통령에게 독재라고 하더니 입법부가 해야 할 일을 전부 대통령에게 해달라고 한다.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장난감을 고를 수 있는 나이인데도 엄마에게 때를 쓰며 골라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라고 말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나설 것을 요구하는 야당을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원내대표가 돌파구 마련을 위해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유족 대표들과 면담을 가졌지만 결실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통합 광·전발언 초대 원장은? 중앙인사·지역인사 허마평 >3면
리틀야구 29년만에 세계 정상 미국 8-4 꺾고 11전 전승 우승 >20면

201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수시모집 2014. 9. 6(토)~9.18(목)
정시접수 2014.12.19(금)~24(수)
입학문의 062)605-1114, 1027
광신대학교

한울

韓律

www.pms.co.kr

당신이 가장 예쁜 날은 바로 오늘이어야 하니까

갈색 솔잎 에너지로 맑고 생생한 오늘피부-한울 율러원액

당신이 가장 예쁜 날은 항상 과거에만 있나요? 기존 대비 3.8배* 농축된 갈색 솔잎 추출물을 담아 세로워진 한울 율러원액을 만나보세요. 갈색 솔잎 추출물이 무더진 피부를 깨끗하고 피부 속 깊이 촉촉한 생기를 전달하니까 맑고 생생한 피부를 가진 오늘이 당신의 가장 예쁜 날이예요.

*비교 실험대상: 진주 갈색 솔잎 추출물 농도 50%

맑고 생생한 오늘피부를 위한 5가지 피부 개선효과		
1. 피부가 촉촉하게 재워지는 느낌이다	100%	비교군: 무드업고 메이크업했다
2. 피부가 다해져 탄력 있어 보이는 것 같다	99%	비: 탄력 없어진 느낌이다
3. 단약이 자물라 탈락해진다	98%	*비교군: 100% 갈색 솔잎 추출물 100명 대상, 30.4.25~4.25 30분 사용